

‘전남 수목비엔날레’ 기간 미술인 방북 추진

북 만수대 작가 초청·작품 반입 무산 따르도, 5명 안팎 신청기로 ... 성사 여부 주목

남쪽의 한국화, 북쪽의 조선화가 ‘수목’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을까?
국내 최초 전통회화 비엔날레인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전남도가 행사 기간 중 미술인 방북을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전남도는 국제수목비엔날레에 평양 만수대장작사 인민 작가 10명을 초청하고, 작품 30점가량의 반입을 추진해왔다.
북한 작가의 참여는 남·북 수목의 경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북한 초청 작가는 1주일가량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과정을 선

보이려 했지만,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남도는 통일부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했지만, 개막을 10일 앞두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에서 북한 수목 작품을 반입할 수는 있지만 진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공식 채널로 북한 작품을 가져오는 데는 대북제재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그 대안으로 남측 작가들이 방북해 북측 미술인과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통일부에 작가 5명 안팎의 북한 방문을 신청하기로 했

다.
방북에 필요한 초청장을 북측에서 보낼 수 있도록 대북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통한 접촉도 진행 중이다. 당장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비엔날레 개막 전 성사는 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남측 작가가 방북한다면 북측 작품 반입도 가능하게 돼 남북 미술 교류와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관심 고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행사 기간 중에도 남북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아직 추진 단계지만 의미 있는 교류가 성사되도록 통일부·민간단체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이번 비엔날레에 북한작가의 참여가 어렵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남북교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목포에서 통일 수목 학술대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목을 남쪽은 한국화, 북쪽은 조선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통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수목비엔날레 본 전시는 ‘오늘의 수목-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립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작가 266명의 작품 310점이 전시된다.
한편, 다음달 7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는 북한미술작품 22점이 전시된다. 현재 작품 전시장 설치작업 중이며, 사전 점검을 마치면 별도 오프닝 없이 공식 개막 이후 선보일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및 걸려 분열 야기”

광주시의회 임시회 지적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정하는 공론화를 둘러싸고 광주시원들이 열린 논쟁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은 “공론화의 빛에 걸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광주시가 형식적인 공론화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석호(북구4)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도 못한 채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져 대립만 하고 있다”면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중앙정부 승인 이후 16년이라는 긴 세월 노선이 3번 바뀌고 건설방식도 3차례나 변경됐으며, 수많은 논의·토론·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방식으로 결정됐는데도 또 속의하지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부상은 4호선이 개통됐고 인천 2호선·대구 3호선은 우리보다 기본계획이 늦게 승인됐으면서도 일찍 건설돼 지역 의 핵심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광주만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 사용되는 비

용과 시간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론화에만 매몰되지 않고 원안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광주시가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재진(북구1)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해당 용역 과업지시서는 과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2개월내 시민 공론조사 및 결과 분석을 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이미 공론화 방식을 정한 것과 다름 아니며, 광주시장과 공론화위원장이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을 결정할 것인지 광주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시작된 이번 회기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망 벤처·창업기업 역량 키워 투자자 유치

전남도, 20개사 모집 4개월 맞춤형 멘토링 등 지원

전남도는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기업 20개사를 모집,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투자설명회는 참여 기업을 사전에 모집해 IR 역량 강화교육, 1대1 맞춤형 멘토링, 모의 IR 등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기업 역량을 키운 후 투자자들에게 선보여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창업지원기관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대창업지원단과 협업해 참여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전략 및 사업 아이템 고도화 등을 컨설팅하고, 모의 설명회도 실시한다.

또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이 있는 수도권 벤처캐피탈 위주의 20여 투자회사를 초청해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정보교류 및 1대1 상담도 한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9월 14일까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34)나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창업 초기 대다수 벤처·창업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기업들에 대한 주기적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로 투자를 유도해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게요 22일 오후 서울 중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4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추진

9월 용역 발주

광주시가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22일 “주거기본법에 의거해 2030년까지의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9월 용역과제 심의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0 광주시 주택종합계획의 연계계획으로, 용역기간은 1년, 용역비는 3억원이다.
용역 내용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금의 조

달 및 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또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시는 2019년 예산에 용역비를 배정하고 내년 3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민제안사업 40개 100억 규모

문화예술 일자리 등 20억

광주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들이 내년에 추진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21일 시청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40개 100억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의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1년 시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첫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터 시민제안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3~4월 시민공모를 통해 632건, 1368억원 규모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제안받아 8개 분과위원회별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사업비,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지난 9월 9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위원들의 투표로 시민제안 632개 가운데 40개 사업을 간추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교통건설, 일자리경제, 일반행정 등 7개 분야 40개 사업, 1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먼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경우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원이 선정됐다.
이 밖에 복지건강분야 8개 사업 14억원, 환경생태분야 6개 사업 21억원, 도시재생분야 2개 사업 8억원, 교통건설분야 9개 사업 26억원, 일자리경제분야 4개 사업 8억원, 일반행정분야 5개 사업 2억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오는 12월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박상백 시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치 실현”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